

군산시,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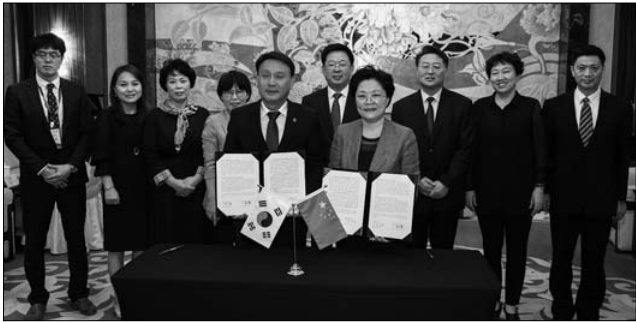
10개 도시 60여명 국제교류 관계자 참석 우호증진 도모 親군산 네트워크 구축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의 엔타이시와 선양시를 방문해 도시교류 강화 및 군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다.

자매도시인 엔타이시에서 열린 제5회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에는 엔타이 시장과 주 청다오 대한민국 박진용 총영사, 김동환 엔타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0개 도시 60여명의 국제교류 관계자가 참석해 도시 간 우호증진을 도모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주 청다오 대한민국 박진용 총영사의 '한·중 지방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제교류 방안' 기초 연설에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의 변화와 혁신의 군산 새롭게 시작한다'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199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엔타이시의 장용샤 시장을 만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더욱 돈독한 자매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바



강임준 군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의 엔타이시와 선양시를 방문해 도시교류 강화 및 군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다.

른 행보를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2015년 11월 개소한 군산 새만금 홍보관 및 엔타이사무소를 둘러보고 군산시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 등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 주재관과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선양시의 '세계 겨울도시 시장 회의'에 초청받아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유웨이 시장을 만나 양 시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및 체육·경제 등 민간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개최된 제5회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는 10개 도시(엔타이, 청다오, 웨이하이, 둥잉, 뤄윈강, 단둥, 푸양, 장인 베이하이, 쿤산)와 한 곳에서 만나 소통하고 친군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선양에서는 20개국의 시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군산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4개국 17개 자매우호도시와 폭 넓은 공공외교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도시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는 장수성의 뤄윈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군산시의회,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

군산시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경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에 앞장서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 후 시의회는 주공시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최근 흡수광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영세 상인들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군산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몸소 장보기 실천으로 민생경제를 살렸다.

또한 의원들은 상가를 일일이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지역경제 위기극복 위한 추경 1193억원 증액편성

군산시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193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1,399억원을 편성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 불안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모았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98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 9억원 청년센터 조성 등 일자리 사업 71억원 고군산 등 관광지 개발 49억원 등 총 270억 원이 편성돼 지난 3일부터 판매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 20억원, 학교 주변 가로등 확충 5억원, 스마트 방범용 CCTV와 대중교통 이용자 안전을 위해 8억, 유가품물보호 1억원 등 강임준 군산시장의 민선7기 생활공감형 사업에 489억원이 반영돼 쾌적한 안전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갔다.

이밖에도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SOC사업을 최소화한 지방채 조기상환 68억원을 반영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3회 추경예산 심의와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반대' 건의문 등 현안 문제 심의에 역점을 뒀고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현장방문,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군산시 가스사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은파관광지 도심 관광평소와 사업 등 5건의 간담회와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장)도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4건의 간담회와 미래 20년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현황 등 8개를 방문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치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를 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1,399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4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조치 했다.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서동환 의원이 제안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반대 건의안 채택과 김중신 김영일 이한세, 배형원 의원이 지역현안문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의 방청석에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0여명이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참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도상훈련 실시

군산소방서는 12일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각종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를 총괄하는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기구며, 기능숙달 도상훈련은 관내 주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화재 등 재난상황을 가상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군산시 소재 월명아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과 연기에 의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과 통제단의 각 부·반별 개인임무를 확인하고,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형재난 발생 시 일시불란한 대응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대, 스마트양식·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부경대 등 공동 참여 2023년까지 6년간·총사업비 400억원·일자리창출 기대

군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기술개발 및 수산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군산지역 수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12일 군산대에 따르면 본 사업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책임연구기관으로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정책기술연구소, 부경대 등이 공동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6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00억원이다.

스마트 양식기반 및 수산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군산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산업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농생명 식품산업과 군산대학교가 확보한 탄탄한 인적·물적 인프라, 기존 수산업양식 종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대학교는 내년 4월까지 AI 기반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AI 적용 시험양식 시설 구축 및 자동화 기술개발, 스마트 양식용 우량종묘 대량생산 기술 개발, 스마트 양식용 양식 기자재 개발과 적용 등을 수행한다.

이후에는 AI기반 스마트양식 표준화 시설 구축, 새만금 부지 내 수산물가공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어육 및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양식장과 가공산업 클러스터의 융복합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구축 ▲아쿠아AI러닝(Aqua AI Learning) 기반 양식기술 개발 ▲아쿠아AI클라우드(Aqua AI Cloud) 서비스연계기술개발 ▲어육생산업 Fish Farming Factory 실증 모델 구축 ▲클라우드 양식산업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군산지역 새만금간척지에 인공저수지 기반 스마트 양식장이 조성되고, 주변에는 수산식품가공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생산-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 계열화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현섭 교수(군산대 해양생명융공과학부)는 "군산지역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경제성있는 어종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통해 수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곽병선 총장은 "도내 내수면 양식어업이 전국 최대 규모로서 국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업에 집중해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